

◎ Fundamental Problems of Entry in Cataloging of Oriental Materials

# 東書目錄記入에 있어서의 基本問題

朴 熙 永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司書課長)

現在 우리나라 大部分의 圖書館에서는 東書의 카아드 目錄을 作成할때 韓國圖書館協會(以下 圖協이라 略한다) 目錄分科委員會가 編著한 「韓國目錄規則」(以下 KCR이라 略한다)을 基準으로 하고 있으며 KCR의 條文과 例만으로 理解하기 어려운 點이 있을 때에는 KCR 制定에 關係하셨던 張一世先生이 著述하신 「韓國目錄規則解說」(以下 KCR 解說이라 略한다)을 비롯한 몇가지 圖書를 參考하면서 目錄을 作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KCR 解說 序文에

「어찌까지나 韓國目錄規則은 하나의 規則 다시 말하면 目錄作成의 기본이 되는 法律로서 장황하게 진설명을 불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圖書館學에 상당히 익숙하거나 오랫동안 實務를 담당하지 아니 하고는 이 規則을 쉽게 理解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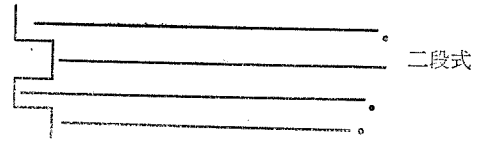
라고 KCR의 條文을 理解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述하고 있다. 筆者는 圖書館學의 初學者도 아니고 또한 實務에 있어 日淺하지도 않은데 實際 目錄을 作成하면서 KCR에 對하여 여러곳에 疑問이 있어 이 疑問을 풀 었으면 하는 心情에서 KCR의 例를 中心으로 質疑한 바 있었고 또한 書名을 標目으로 하였을 때 即 Hanging Indention에 對한 例와 그리고 學位請求論文에 對한 出版事項의 記入例에 對한 KCR의 例와 筆者의 意見이 달려 이것을 吐露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目錄에 있어 枝葉의인 問題들이라 하겠다.

東書의 카아드 目錄 作成에 있어 보다 基本이 되는 目錄의 記入樣式과 標目的 記入樣式에 있어 KCR과 筆者의 意見이 다르므로 이에 對한 筆者의 意見을 記述하고 져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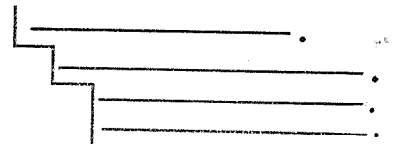
## 1. 東書의 記入樣式 問題

現在 東洋에서는 東書의 目錄 記入 樣式에 있어 「二段式」「三段式」이란 二大潮流가 있다.

二段式 三段式이란 카아드에 記載한 모양을 보고 命名한 말로서 二段式 三段式의 모양을 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三段式



KCR은 二段式으로 記入하게 되어 있는데 三段式에 對하여 KCR 解說에서

「東洋에 있어서 是 記入樣式에 있어서 소위 三段式이 많이 쓰여 왔다」

라고 述하고 있는데 漢字를 使用하고 있는 中國과 日本은 現在도 三段式으로 目錄을 作成하고 있으므로 「쓰여왔다」라기 보다는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한다.

## KCR 解說에 보면

「東洋에서 많이 쓰여 왔는데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이 양식을 거의 全的으로 東洋書 목록에 채택되어 왔으므로 지금도 이 방식을 따라 記入하고 있는 도서관도 상당수 있다」 p. 73

라고 5年前인 1968년에 KCR 解說을 著述할 當時의 韓國圖書館界 東書目錄作業 狀況을 說明하고 있는바 이에 對하여는 II. 標目的 記入形式問題에서 具體的으로 述하겠거니와 1955年으로부터 KCR이 起草되기 까지 約十年間 每年 이루어졌던 實務講習會에서 三段式으로 講義되었던 關係라고 하겠다.

그런데 三段式에 對하여 KCR 解說은

「三段式의 가장 큰 短點은 첫째로 그렇지 않아도 좁은 카아드面의 량이 많으며, 둘째로는 記載位置를 결정하기가 늘 어렵다는 점이다」

라고 短點두가지를 들고 있다. 西書는 거의 打字機를 利用하여 目錄을 作成하고 있어 別로 問題가 되지 않지만 東書는 大部分 手書하여 作成하고 있는데 手書하

는 경우 手書하는 사람의 筆才에 따라 깨끗하고 보기 좋은 카아드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아니면 反對로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카아드가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좁은 카아드 面의 낭비가 많다고 첫째로 指摘한 短點에 對하여 낭비됨이 없다는 것을 立證하기 爲하여 二段式과 三段式의 두種의 카아드를 作成해 보면

KCR 解説 p.73 第18圖

장, 일 세  
韓國目錄規則解説, 張一世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20p. 삼도. 22cm. (韓國圖書館學叢書, 第16卷)

장, 일 세  
韓國目錄規則解説, 張一世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20p. 삼도. 22cm. (韓國圖書館學叢書, 第16卷)

위의 같은바 二段式이나 三段式이 모다 橫으로 五列을 所用했으므로 낭비하였다고는 볼수 없으며 二段式 보다는 三段式이 視覺的인 面에서 오히려 산만하지 않고 整然하게 보인다고 말할수 있다.

더욱 比較해 보기 위하여 KCR 解説에 있는 例를 그대로 옮겨서 이것을 三段式으로 作成하여 例示하여 본다면

KCR 解説 p.85 第20圖

이, 광 수, 1890—  
李舜臣, 李光洙著. 서울, 永昌  
書館, 檀紀4286(1953)  
522p. 18cm.

이, 광 수, 1890—  
李舜臣, 李光洙著.  
서울, 永昌書館, 檀紀4286(1953)  
522p. 18cm.

KCR 解説 p.138 第57圖

춘 향 전  
獄中花, 申泰三編. 서울, 世昌  
書館, 4285(1952)  
190p. 19cm.

춘 향 전  
獄中花, 申泰三編.  
서울, 世昌書館, 4285(1952)  
190p. 19cm.

以上과 같이 二段式으로 作成한 카아드를 보면 出版事項을 記入함에 있어서 첫 列에는 「서울」「世昌」까지 記入하고 다음 列에다 「書館」이라고 記入하여 있는 것

을 볼수있다. 그런데 이것에 比하면 三段式에서는 整然하게 記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三段式에서도 二段式에서의 例와 같이 列을 걸쳐서 記載되는 경우가 때로는 發生하지만 二段式에 比한다면 三段式에 있어서 그러한 경우의 빈도가 적다고 하겠다.

前揭한 例의 카아드는 目錄規則을 볼오는 閱覽자가 볼때 第三列에 붙속 뛰어나와 記入되어 있는 「書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 보지 못할 것 같다. 다음에 어느事項이 길어서 다음列로 繼續될 때의 二段式과 三段式의 例를 더 들어 본다면

KCR 解説 p.88 第22圖

김, 정 식, 1903—1925.  
(決定版) 못잊을 그 사람; 新收錄,  
詩, 感想, 書簡, 小說全載, 金廷湜著, 白淳在, 河東築  
共編. [서울] 良書閣, 1966.  
209p. 18cm.

김, 정 식, 1903—1925.  
(決定版) 못잊을 그 사람; 新收錄,  
詩, 感想, 書簡, 小說全載, 金廷湜著, 白淳在,  
河東築 共編 [서울] 良書閣, 1966.  
209p.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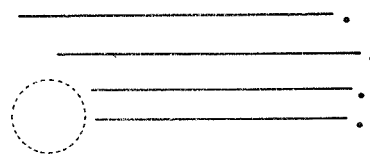
이와 같이 二段式이나 三段式이나가 모다 6列을 消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例示한 카아드를 一般閱覽者에게 어느편이 알기 쉬운가를 問疑한 바 二段式보다는 三段式이 알려 보기 쉽다는 對答을 받았다.

二段式의 目錄作成을 爲한 規則은 大體로 美國과 英國의 目錄規則을 參考하여 制定되었다고 하겠다. 西書는 主로 打字機로서 카아드를 作成하기 때문에 카아드를 打字機에 끼워 놓고 記載할 各項의 必要한 것을 찾아 가면서 한項 한項을 打字하여 作成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目錄을 作成할 圖書만 하더라도 標目을 비롯하여 標題事項으로 부터 出版事項까지는 記載할 必要한 것들이 標題紙에 아니면 標題紙 裏面에 모다 印刷되어 있기 때문에 圖書를 앞뒤로 뒤져거리지 않고서도 標題紙만으로 必要한 것을 옮겨 打字하면 되지만 東書는 標目은 標題紙에서 찾고 出版事項은 本文 끝에 있는 版權紙에서 찾아 記載할 뿐만 아니라 手書로서 카아드를 作成하기 때문에 한事項을 이곳 저곳에서 찾아 記載하다 보면 카아드에 記載하는 글씨가 고루지 못하기 쉽다. 圖書의 造本形態가 東書와 西書가 同一하지 않으므로 西書를 基準으로 制定한 外國의 規則에는 우리의 事情에 맞지않은 곳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版次表示에 必要한 版次가 西書는 大部分 標題紙에 印刷되어 있어 標題事項에 이어 版次表示를 하기가 쉬우다. 그러나 東書에서는 大部分이 本文이 끝난뒤에 있는 版權紙에 出版年과 함께 版次가 印刷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東書의 目錄을 二段式으로 作成할 때 版次의 記載를 누락하기 쉽다. 하기가 注意하여 記載하면 누락될 理가 없으나 改訂版, 修正版, 增補版 等 版次事項을 冠稱으로 取扱하는 것이 便하도록 되어 있는 圖書가 東書에는 많이 있어서 冠稱으로 取扱하게 된다. 東書와 西書의 造本形態와 樣式이 달라서 書名을 記載하고 나면 標題事項이 끝난 것 같이 느껴져서 다음 事項인 出版事項을 記載해 나가게 된다. 그래서 出版事項의 出版地 出版所 出版年을 記載한 다음에야 版次가 누락된 것을 發見하는 때가 흔히 있게되며 發見한 版次를 記載코져 할 때에는 이미 스페이스가 없어 結局 作成하던 카아드를 버리고 다른 카아드로서 再作成해야 할 경우가 實際로 往往 生기는 것이다. 그런데 三段式의 目錄規則에서는 版次表示를 出版事項 끝에 記載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標題事項이 끝나면 列을 바꾸어서 出版事項을 記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圖書이 造本 形態와 樣式에 맞추어서 規定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三段式으로 目錄을 作成할 때에는 標目を 選定하여 記入하고 나서 列을 바꾸어 標題事項을 記入하고 또 列을 바꾸어 出版事項을 그리고 또 列을 바꾸어 對照事項을 記入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各事項을 事項別로 列을 바꾸어 記入하면 됨으로 二段式에서와 같이 版次記入에 對하여 神經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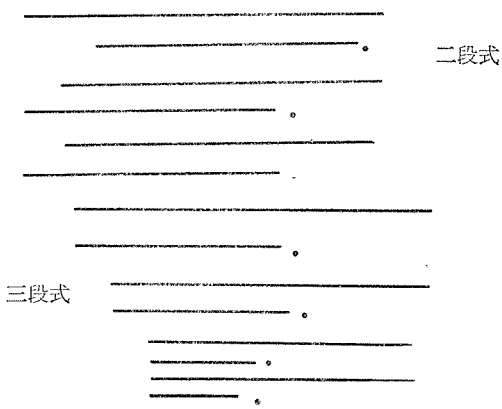
版次에 있어 우리나라 圖書들은 出版人들이 版次와 刷次를 明確하게 區別하여 使用하고 있지 안는 것으로 보인다. 國內書를 보면 數10版 發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版을 對照해 보면 何等에 變換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것들은 刷와 版을 區別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版次에 해당되는 것은 오히려 書名앞에다, 「改訂」「改訂增補」「改訂三版」 등으로 版이 다르다는 것을 表示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冠稱으로 取扱되는 경우가 많다. 國內書는 西書와 같이 版次와 刷次를 嚴正하게 區別하여 使用하고 있지 않아서 版次의 表示를 標題事項에 이어서 記載해야 할 必要性을 절실하게 느끼지 안는 것이며 오히려 出版年 다음에 記載하는 것이 여러面에서 便하고 또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스페이스問題만 하더라도 ○로 表示한 部分을 指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記入한 列에 있어서 比較한다면 三段式이라고 해서 二段式보다 別로 더



많은 列을 消費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4 列을 使用하고 있으면서 記載할것은 다 記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指摘되고 있는 스페이스問題는 큰 短點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指摘하고 있는 短點으로서 「記載位置를 결정하기가 늘 어렵다」고 하였는데 記載位置란 어떤事項의 어떤경우의 記載位置를 指摘하고 있는 것인지 알수 없으나 二段式과 三段式에 있어서 各事項이 걸어서 다음列로 계속될 경우의 모양을 對照해 보기 위하여 圖示하여 보면



위와 같은바 이렇게 圖示해 보면 二段式보다는 三段式이 凹凸이나 굴곡이 없어 보이며 또한 整然하게 보이고 各事項이 始作하는 位置 또한 뚜렷하여 位置를 決定하는데 別로 問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으로 位置決定이 어렵다고 指摘한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고 있는지 納得이 가지 않는다.

## II. 標目の 記入形式 問題

KCR 을 制定하면서 報告한 圖協 目錄分科委員會의 報告書에 依하면 KCR 全體를 通하여 標準으로 하고 있는 몇個項의 原則이 있는데 原則中에서 그 첫째가

(1) 標目的 形式을 한글로만 한다

라는 標目を 한글로만 表記한다는 것이 原則이고 이에 對하여 KCR 解説은

「標目的 形式을 한글」로만 한정시킨 것은 우리나라 目錄의 크나큰 前進이요 一次革新이라 할수 있다」 p.82 라고 述하고 있다. 그러나 KCR 에 依하여 作成되는

目録의 標目은 全部가 한글로만 記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圖書에는 個人名이던 團體名이던 間에 모다 著者가 있어 著者名을 標目으로 採記하는 것만은 아니고 때로는 書名을 標目으로 採記하도록 KCR에서도 規定하고 있는 것이다. 卽 撰者未詳의 金石文, 無著者名圖書, 百科事典 辭典의 一部, 便覽, 叢書, 全集, 講座, 共著書, 合集, 逐次刊行書, 年鑑, 人名錄, 電話番號簿, 新聞, 索引, 附錄, 記念論文集, 原文 또는 註釋者未詳의 註釋書, 作圖者未詳의 地圖 및 設計圖, 作曲者 改作者 未詳의 民謠, 族譜, 系譜, 世譜, 奉命官撰書, 地方官撰書, 古代法典 等等은 書名을 標目으로 採記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며 이들에 對한 例를 보면 標目으로서의 書名을 모조리 漢字로 記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標目的 形式을 한글로만 한다」라고 全體를 通한 原則을 세우고 있고 이 原則에 따라 個人名, 團體名 또는 特殊標目에 對한 例들은 한글로 記入하고 있는데 書名을 標目으로 하였을 때만은 圖書에 印刷되어 있는 대로 한글 또는 漢字로 記入하고 있다. 標目を 한글로 記入하는 일에 對하여 「크나큰 前進이요 一大革新」이라고 解說하고 있으면서 한글로만 標目を 記入하지 않고 어찌서 書名이 標目으로 될 때에는 漢字로 記入하는지 알 수 없다. 書名을 標目으로 할 때에 限하여 漢字를 그대로 記入하는 理由에 對하여서는 說明된 處가 없어 어찌서 스스로가 定한 原則을 無視하고 있는지 理解할 수 없는 일이다.

標目を 한글로만 記入하도록 規定한 理由를 KCR 解說에서는

「모든 標目은 그 카아드를 排列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標目이 한글이 아닌 것은 한글로 表記한 後 排列하여야 한다」 p. 82

라고 述하고 있고 또한 標目과 排列과의 關係를

「기본기입으로 무엇이 되던 간에 그것이 그 카아드의 標目(heading)으로서 그 카아드의 배열 기준이 된다」 p. 78

이라 述하고 있는바 이 글을 解釋하기에 따라서는 標目이란 排列을 爲하여 다시 말해서 排列하는 基準으로 使用하기 爲하여 記入하는 것이 卽 標目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는 것이다. 標目에 對한 定義를 用語集에서 찾아 본다면 圖協의 「圖書館用語集」 p. 135 에는

표목(標目)

Heading

目録記入의 첫 머리에 있는 낱말, 姓 또는 句節로서 字順排列의 基準이 되는 것이다.

라고 있는바 「字順排列의 基準」이라고 解釋한 字順排列<카아드排列에는 字順排列과 語順排列이 있는데 어

찌서 字順排列이라고 못 박았는지 알 수 없다>에 對한 問題는 다른 機會로 미루기로 하겠다) 外國의 것을 參考한 다면 美國圖書館協會가 編한 「圖書館解說集」에는 「目録法에 있어서 책의 어떤 特別한 部面 곧 著者 主題內容 叢書名 書名 등을 表示하기 爲하여 記入의 첫머리에 주어지는 이름 낱말 또는 낱말토크이며 그 것들에 依하여 目録에 있어서 關聯된 資料가 함께 모여 진다」

※ 千惠鳳 著 古書分類目録法 下卷 p. 4

라고 있다. 이 두 定義를 比較할때 비슷하게 解說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생각할때 外國의 目録規則이나 定義를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全然 事情이 달라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보겠다.

東書와 西書가 根本的으로 다른 點은 本文을 記述하고 있는 文字라고 하겠다. 歐美各國에서 出版된 圖書를 西書라고 하고 東洋에서 出版된 圖書를 東書라고 말하고 있는데 西書는 한 種의 文字만을 使用하고 있으나 東書는 中國만은 全部가 漢字이고 韓國과 日本은 그나라 固有한 文字인 한글과 五十音이라는 表音文字를 갖이고 있으며 이 固有의 文字와 漢字를 混合해서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極히 一部分의 圖書를 除外한 大部分의 圖書는 標目으로 採記해야 할 人名이나 團體名 또는 書名까지도 漢字로 表示되어 있는 것이다. 目録을 作成하는데 必要한 目録規則을 制定함에 있어 無視할 수 없는 일은 目録은 圖書를 보지않고 도 쉽게 檢索할 수 있도록 하기 爲하여 作成되는 것이므로 圖書에 使用되고 있는 文字의 事情이 다르면 自然히 規則을 制定함에 있어서도 달라야 할 것이고 用語의 解說도 이에 따라서 달라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西書에 있어서는 그대로 排制할 수 있는 文字만을 使用하고 있기 때문에 標目으로 採記한 그 文字가 排列의 基準으로 轉用될 수 있으나 漢字와 固有의 文字를 混合使用하고 있는 東書에 있어서는 事情이 다르다고 하겠다. 標目이 되는 著者名을 한글로 記入하였을 때에는 그 것이 排列의 基準이 될 수 있으나 書名이 標目이 되어 漢字로 書名을 標目으로 記入하였을 때에는 記入한 漢字를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排列의 順位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해서 한글로 고쳐 記入할 수는 없다고 본다. 漢字를 使用하고 있는 東洋人의 姓名을 볼 때 그 漢字 하나하나에 뜻이 있을 뿐만 아니라 音은 같아도 文字와 文字의 뜻이 다르며 심지어 漢字로서 戶籍原簿에 登記되어 있으므로 漢字로 된 東洋人의 姓名은 그 사람 固有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個人的 固有한 것을 구태여 한글로  
고쳐서 記入하고 그것이 「排列의 基準이 된다」라고 하  
는데 對한 論理가 充分하지 않다고 보며 따라서 理解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KCR 에 依하여 作成된 카아드中에서 標目이 排列의  
基準으로 되는 카아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저 한다. 우선 圖書館이 具備해야 하는 基本的인  
目録을 圖示하여 보면

|       |                              |
|-------|------------------------------|
| 事務用目録 | 復本調査用目録<br>書架目録              |
|       |                              |
| 閱覽用目録 | 著者名目録<br>書名目録<br>主題名 또는 分類目録 |

以上과 같이 五種이 있어야 한다. 이中에서 主題名  
目録과 分類目録은 二種中에서 한種만 있으면 足하므  
로 여기서는 便宜上 分類目録을 作成하는 것으로 하고  
五種의 카아드를 作成하여 例示하여 보면

事務用

復本調査用目録

024.3 장, 일 세, 1923—  
×182쪽

韓國目錄規則解說, 張一世 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25675 1, 024.3 1. 서명.

書架目録

024.3 장, 일 세, 1923—  
×182쪽

韓國目錄規則解說, 張一世 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25675

閱覽用

分類目録

024.3 장, 일 세, 1923—  
×182쪽

韓國目錄規則解說, 張一世 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書名目録

024.3 장, 일 세, 1923—  
×182쪽

한국목록규칙해설  
韓國目錄規則解說, 張一世 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著者名目録

024.3 장, 일 세, 1923—  
×182쪽

韓國目錄規則解說, 張一世 著.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이와 같이 作成된 五種의 카아드를 實際 排列하는데  
있어 基準이 되는 事項을 圖示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 請求<br>番號의<br>分類<br>記號 | 請求<br>番號의<br>圖書<br>記號 | 標<br>目      | 標<br>題 | 書<br>名<br>標<br>記 | 分類<br>記號<br>表示 |
|-----|-----------------------|-----------------------|-------------|--------|------------------|----------------|
| 事務用 | 復本調査用目録               |                       | I           | II     |                  |                |
|     | 書架目録                  | I                     | II          |        |                  |                |
| 閱覽用 | 著者名目録                 |                       | I           | II     |                  |                |
|     | 書名目録                  |                       | II          |        | I                |                |
|     | 分類目録                  |                       | II          |        |                  | I              |
| 計   | I=1                   | II=1                  | I=2<br>II=2 | II=2   | I=1              | I=1            |

※ I=1次 II=2次

以上과 같은바 KCR 解說에서 「標目은 그 카아드를  
排列하는 基準」이 된다고 하였으나 前掲한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標目이 排列의 基準이 되는 것은 事務  
用目録에서 復本調査用目録만이 一次的 基準이 될뿐 書  
架目録에서는 何等 排列의 基準이 되지 않고 있으며 閱  
覽用目録에서는 著者名目録만이 一次的 基準이 될뿐 書  
名目録과 分類目録에 있어서는 各各 二次의 基準이 되  
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五種의 目録을 排列함에  
있어 標目이 一次的인 基準으로 되는 경우는 二種 뿐  
이고 나머지 三種은 二種만이 二次의인 基準이 되고  
一種은 全然基準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萬一 한글로 記入한 標目이 圖書館에서 具備해야할 五  
種의 目録 全部가 그대로 排列의 第一次의 基準으로  
된다고 한다면 標目を 한글로 고쳐서 記入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대 對하여 首肯할수 있으나 前掲한 圖表와  
같이 2/5만이 한글로 記入한 標目を 그대로 排列하게  
되는데에도 이것을 「크나큰 前進이요 一大革新」이라고  
까지 말할수는 없다고 본다. 排列에 있어 前述한바와  
같이 五種의 目録中 二種만이 그대로 一次的 基準이되  
고 나머지 二種은 二次의 基準이 되며 一種은 全然 排  
列과는 關係가 없는 標目的 記入을 굳이 한글로 바꾸어  
記入한 後 著者表示에다 標目으로 採記한 姓名을 세  
삼 漢字로 記入해야 하는 方法의 目録이 目錄分科委員  
會의 報告書에 있는 「가장 進步的인 目錄規則이 되었  
다」라는 말에 該當될수 있을 지? 이 또한 알수 없다.  
다시 KCR 解說을 보면

「著者名을 例로 든다면 一般的으로는 漢文字로 쓰

기 때문에 基本記入으로 쓰일 때 또는 其他 다른 標目으로 쓰일 경우 漢字를 써야 하지만 漢字로 썼을 경우에는 그 위에 다시 한글로 표기하여야만 배열하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二重으로 記入하지 않으면 안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p. 82

라고 述하고 있는데 여기서 「一般的으로는 漢文字로 쓰기 때문에」라고 述하고 있음은 即 KCR 이 制定되기 以前과 그 當時의 大部分의 圖書館은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目錄分科委員會의 報告書에 보면 規則 制定에 參考한 것으로서 國內規則은 朴奉石先生이 編한 書名主記入의 目錄規則만을 提示하고 있는데 朴奉石氏의 規則으로부터 KCR 制定까지 사이에는 高在稔氏의 目錄規則과 筆者의 目錄規則案이 있었으나 朴奉石氏의 規則만을 參考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筆者의 規則案은 至極히 未備한 것이었지만 1955年以後 KCR 草案이 制定될 때까지 圖協主催 實務講習會에서 教材로 使用되던 것으로서 이 規則案은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으로 講義한 까닭에 KCR 이 制定될 當時의 大部分의 圖書館은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여간 KCR 解說에서 漢字로 標目を 記入하는 것을 「二重」의 일이고 「번거로움」이라고 指摘하고 있는데 標目を 한글로 記入한다고 하더라도 標題事項에 이어 著者表示로서 標目으로 採記한 著者名을 반듯이 漢字로 다시 한번 記入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KCR은 二重으로 記入하면서 이것은 二重이 되는 일이 아니고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고 나서 排列의 基準으로 하기爲하여 必要한 것만 標記하는 것은 二重이 된다는 말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二重記入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는 方法보다는 標目を 한글로 記入하고 漢字로 一히 著者表示하는 方法이 오히려 二重記入이 된다고 본다.

標目を 한글이 아닌 漢字로 記入하는 카아드를 作成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事務用

複本調査用目錄

|                |          |    |     |  |
|----------------|----------|----|-----|--|
| 024.3<br>×182호 | 張        | 一  | 世   |  |
|                |          |    |     |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br>韓國圖書館協會, 1968.<br>309p. 삽도. 21cm. |
| 25675          | 1. 024.3 | 1. | 서명. |  |

書架目錄

|                |    |   |   |  |
|----------------|----|---|---|--|
|                | 장, | 일 | 세 |  |
| 024.3<br>×182호 | 張  | 一 | 世 |  |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25675

閱覽用

|      |                |   |   |       |
|------|----------------|---|---|-------|
| 分類目錄 |                |   |   | 024.3 |
|      | 024.3<br>×182호 | 張 | 一 | 世     |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書名目錄

|  |                |   |   |   |
|--|----------------|---|---|---|
|  | 024.3<br>×182호 | 張 | 一 | 世 |
|--|----------------|---|---|---|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著者名目錄

|  |                |   |   |   |
|--|----------------|---|---|---|
|  | 024.3<br>×182호 | 張 | 一 | 世 |
|--|----------------|---|---|---|

韓國目錄規則解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8.  
309p. 삽도. 21cm.

以上の 例와 같이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는 경우 一人 著書인 때에는 著者表示가 不必要한 것이다. 漢字로 標目を 記入할때 標目으로 부터 以下 標題事項, 出版事項, 對照事項, 請求番號까지의 各 事項을 記入한 카아드는 어떤 圖書에 對하여 作成한 무슨 카아드라는 것을 알수있고 그 카아드 위에다 標記를 한다면가 分類記號를 表示하는 그 標記와 表示는 單只 一次의인 排列의 順位를 決定해 주는 것에 不遇한 것이기 때문에 카아드 한장 한장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目錄에 排列해야 하는 카아드인지 即時 알수 있는 것이다.

漢字로 記入하는 것이 二重이라고 指摘되고 있는 漢字를 그대로 標目으로 記入한 것과 한글로 記入한 것과를 比較하여 볼 때 카아드상에 記入된 文字의 數에 있어 五種을 合해서 본다면 標目を 한글로 記入한 것이 漢字로 記入한 것보다 記入한 字數가 12字나 더 많이 記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即 複本調査用目錄과 著者名目錄카아드는 著者表示한 것과 排列을 爲하여 標記한 것으로 字數를 相殺하고 나면 書架目錄, 書名目錄, 分類目錄에서는 한글로 標目を 記入한 편이 著者表示가 各枚當 4字씩 더 記入하고 있어 (4字×3枚)

오히려 12字가 더 많이 記入되어 있으므로 二重이라고 指摘하고 있는 漢字로 記入한 頁이 카아드에 記入한 字數는 오히려 적은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KCR 解説에서

「모든 標目を 한글로 한다는 것은 目錄組織을 간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事務能率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주는 同時에 카아드의 스페이스 節約에도 도움을 준다」 p. 82

라고 標目を 한글로 記入하는 長點을 列擧하고 있는데 標目を 漢字로 記入하면 標目は 漢字만으로 記入하게 되어 單一化된 카아드로 보이지만 標目を 한글로 記入하는 경우 漢字와 한글을 混用하게 되므로 「目錄組織을 簡便하게 한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漢字로 記入하면 個個의 카아드만으로 어디에 排列될 카아드인지 即時 알수 있으나 한글로 記入하면 即時 알수 없으며 또한 前記 例와 같이 더 많은 文字를 記入해야 하는데도 「事務能率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結果가 될수는 없다고 본다. 카아드의 「스페이스의 節約」이라고 指摘한 點을 다음의 카아드 例를 보더라도

이화여자대학교

80週年記念論文集, 梨花女子大學校

梨花女子大學校

80週年記念論文集

어느 쪽이 카아드의 스페이스를 節約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東書라고 하면 主로 國內書, 中國書, 日書가 包含되는데 설사 國內書의 標目は 한글로 한다고 하더라도 中國書와 日書의 標目は 어떻게 해야 할지 問題이다. KCR 에는 日書에 對하여서는 日本發音을 한글로 記入하고 있다. 標目を 排列의 順位를 決定하는 것으로 解釋하고 있는데 이 問題는 前述하였지만 標目도 標目이러니와 中國書와 日書에 對한 作成된 카아드의 排列問題는 우리나라 圖書館이 지니고 있는 問題中の 하나라고 하겠다. 國內各級圖書館中 特殊한 몇 個館을 除外하고는 中國書를 問題가 될만큼 많이 所藏하고 있지 않아 그다지 問題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日書는 個個圖書館의 全藏書中 相當한 量을 保有하고 있고 또한 每年 無視할수 없는 量이 增加되고 있는 實情임으로 日書의 目錄作成과 作成된 카아드의 排列에 對한 問題는 實로 輕視할 수 없는 問題라고 하겠다.

現在 各圖書館은 日書의 目錄카아드를 어떠한 方法인가로 作成하여 排列하고 있는데 그 方法들을 추려보면

(1) 가나다順으로 排列하는 경우

가) 日本發音으로 읽어 한글로 記入하고 한글 順으로 排列한다.

나) 우리 音으로 읽어 한글로 記入하고 한글 順으로 排列한다.

(2) ABC 順으로 排列하는 경우

가) 日本發音으로 읽어 Rome 字化해서 記入하고 alphabet 順으로 排列한다.

(3) アイウエオ 順으로 排列하는 경우

나) 日本發音으로읽어 日本文字로 記入하고 五十音順으로 排列한다.

以上과 같이 4種의 方法이 있는데 이 4種中 한種의 方法으로는 閱覽者가 檢索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또 다른 한 方法으로 發音參照카아드를 더 作成하기도 한다.

例를 든다면 (1)의 가)와 같이 하는것을 原則으로 하면서도 (1)의 나)와 같은 方法으로 參照케한다 던가 이와는 反對로 (1)의 나)와 같이 하면서 (1)의 가)와 같은 方法으로 參照케하고 있다.

閱覽者가 어떤 圖書를 參考하고자 할때 그 圖書의 內容本文의 言語를 解讀할 수 있어야 그 圖書를 參考하게 되는 것이지 內容言語를 解讀할수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資料라고 하더라도 參考할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日書를 우리音으로 發音하여 한글로 標記해서 排列하였을 때의 例를 든다면 日本人이 日本語로 著述한 「文學概論」이란 圖書를 「문학개론」으로 排列하였을 때 目錄規則은 勿論 모르고 카아드目錄의 組織 또한 모르는 것이 閱覽者인 것인데 目錄에 記載된 다른 事項을 詳細히 보지 않고 「문학개론」만 보고 이것을 閱覽코져 申請하게 되고 請求한 圖書가 閱覽者에게 주어졌을 때 閱覽者는 그 圖書를 言語의 不通으로 參考할수 없어 不必要하다고 바로 返納하게 된다. 「文學概論」을 「분가구가이론」「분가구가이론」「분가구가이론」「분가구가이론」이라던가 아니면 「Bungaku Kairon」이라고 日本發音을 한글로 아니면 Rome 字化해서 排列하였을 때 日本語를 解讀할수 있는 사람이 檢索하기에는 이것들 보다는 「ブンガクカイロン」이라고 日本 五十音順으로 排列되어 있는 것이 그 어느것 보다는 檢索이 便利할 것이라고 본다. 어느 나라 말이던간에 그 나라 文字 以外の 다른 나라 文字로 表記할 때 完全한 音을 表記할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日本語는 濁音과 清音의 區分이 明確한 데 比하여 우리文字는 濁音과 清音의 區分이 없으므로 日本發音을 한글로 表記한다던가 Rome 字化하여 排列하는 일은 不正確하게 될 염려가 많으며 또한 完全을 期할수 없는 것이라고 보겠다.

目錄은 閱覽者로 하여금 손 쉽게 檢索할수 있도록 閱覽者를 爲하여 作成해서 排列하여야만 目錄을 作成한

目的을 達成할수 있으며 意義를 찾을수 있을 것이다.

國內書, 中國書, 日書는 모두 漢字를 使用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著者名의 漢字는 固有한 것이므로 標目을 韓字로 고쳐서 記入하는 것 보다 漢字 그대로 記入하고 排列를 爲한 標記를 하는 것이 整然하고 能率의이고 타當性이 있다고 보겠다.

以上으로 東書目錄作成에 있어서 基本的인 問題인 記入樣式과 標目的 記入形式에 對하여 KCR 과 意見을 달리 하고 있는 點을 述하였다.

KCR 解說에 보면

「萬一 目錄이 있더라도 필요할 때 필요한 圖書를 빨리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目錄의 구실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對象을 가지고 있는 圖書館은 모든 資料에 대한 索引이 圖書館을 위하여서 아니라 利用者를 위하여 마련 되어야한다」 p. 15 라고 目錄의 意義를 力說하고 있다. 圖書館의 目錄은 圖書館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閱覽者를 爲하는 것이라면 二段式보다는 三段式이 利用者에게 視覺의으로 좋다고 느껴지며 作成하기도 便利하다고 생각되어 東書目

錄은 三段式이 좋다고 主張하는 바이다 標目的 文字는 前述한바와 같이 韓字로 고쳐서 記入하는 것 보다는 圖書에 있는 그대로 記入하는 것이 좋다고 아울러 主張하는 바이다.

끝으로 二段式과 三段式으로 記入한 例와 標目을 韓字로 記入한 것과 漢字로 記入한 것을 例示하겠다.

고미카와, 준케이, 1916—

人間의 條件, 五味川純平 著, 李晶潤 譯, 서울, 正尙社. 檀紀4293(1960) 339p. 19cm.

고미카와, 준케이, 1916—

人間의 條件, 五味川純平 著, 李晶潤 譯. 서울, 正尙社, 檀紀4293(1960) 339p. 19cm.

五味川純平, 1916—

人間의 條件, 李晶潤 譯. 서울, 正尙社, 檀紀4293(1960) 339p. 19cm.

<10面에서 繼續>

- VA 일반원리
- VB 과학사
- VC 수 학
- VD 물리학
- VE 천문학
- VF 측지학
- VG 지 학
- VH 화 학
- VJ 광물학
- VK 인류학
- VL 생물학
- VM 식물학
- VN 동물학
- VO 의 학
- VP 공 학
- VQ 농 업
- VR 축 산
- VS 어업, 수렵
- VT 가정학
- VU 제조업
- VX 예술론
- VY 취미와 오락

- X 아동도서
- XA 성경이야기
- XB 성경의 인물
- XC 교회사, 인물전기

- XD 어린이 교리서
- XE 어린이 기도집
- XF 어린이 찬송가
- XG 음 악
- XH 역 사
- XJ 세계사(다른 나라 생활)
- XK 국 어
- XL 어린이 문학
- XM 산 수
- XN 자연과학
- XO 실과
- XP 반공도덕 및 국방
- XQ 사 회
- XR 미술공작
- XS 연 극
- XT 예술가의 전기
- X 체 육
- XV 오락, 소창

Y 합본되지 않은 정기간행물과 학회지 분류배열은 Y뒤에 II표(강목) 해당에 분류기호를 붙인다.  
예1: 언어학에 관한 잡지에는 YB 「학회지」는 위의 「예」와 같이 하되 기호 글자를 소문자로 표시한다.  
예2: 구약학회는 Ye로.

Z 정기간행물 합본도서  
합본물의 분류는 Y와 같이 전개된다.